

識達氣厚內和外嚴望之偉如也善草隸曉音律至於陰陽算數琴碁雜技無不通悟才多而能博如此與秋巒鄭靜而同里往還論易  
理秋巒深歎服之大憲少時善善惡名重士林間公常戒韜晦果被黨禍躓而復起夫人慈和有閨法成就子女賴其教也後公九歲  
以隆慶己巳歿甲子一周矣公卒之越明年壬戌二月葬于連山牛頭里先塋之側夫人祔葬于己巳三月銘曰

學不必祿綏在于耕嗟公抱器身否心享白首青衫猶試牛刀有子克家維士之髦鬱鬱佳城繫公之藏穆如有辭用發幽光  
萬曆十一年 日立

\* 金鎬墓碣

(前 面)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通訓大夫知禮縣監金公之墓

貞夫人全義李氏 祔左

(陰 記)

(篆 額)

贈吏曹參判金公墓碣銘

(碑 文)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金公神道碑銘並序

崇政大夫行兵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禮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 李珥 撰  
中訓大夫春川都護府使原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沈忠謙 書

公諱鎬字叔京光州人新羅末有王子避亂于光仍藉焉入麗朝世爲大官八代平章公其後也曾祖諱國光左議政兼敵愾佐理二勳封光山府院君祖諱克忸大司諫 贈參判光原君考諱宗胤 贈參議妣靈山辛氏守禹鼎之女以正德乙丑生公幼而業文長而數奇晚而筮仕拜瓦署別提移參禮察訪陞主繕工監簿出監知禮縣以嘉靖辛酉季冬卒于官享年五十七以子繼輝貴故 贈吏曹參判配全義李氏封貞夫人是正郎光元之女有男四人女二人男長卽繼輝大司憲次殷輝縣令次立輝別提次公輝察訪女長適李欽次適蔡有根大憲子長生參奉女鄭起溟縣令女姜燦宋爾昌別提子時生善生蔡有根子泓女尹世貞長生子槩集槩其餘孫皆幼公

배우고도 봉록을 바라지 아니하고, 배움으로써 밭갈아 농사짓는다。

슬프도다, 공의 품은 뜻이여, 몸은 막혀 나갈 수 없어도 마음은 행통하도다。

늘그막에 벼슬길에 나갔으나 오히려 큰 숨씨를 시험해 보았네. 아들을 두어 집안을 잘 다스리니, 참으로 준수한 선비로세。

울창하고 아름다운 묘역이여, 공이 고이 잠든 곳이로세。

조용히 생각하며 글을 지으니, 숨은 빛이 나타나는 도다。

만력 11년 8월 일 세움。

\* 김 호 묘갈

(전 면)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행통훈대부지례현감김공지묘  
정부인전의이씨 부좌

(음 기)

(전 액)

증이조참판김공묘갈명

(비 문)

유명조선국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김공 신도비명병서

송정대부 행병조판서 겸 흥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주관 성균관사 이 이 찬하다.

증훈대부 춘천도호부사 원추진명관병마동첨절제사 신증겸 쓰다.

공의 이름은 호이요 자는 숙경이니 광주인이다. 신라 말엽에 한 왕자가 광주로 피난을 온 뒤에 그 후손들은 광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고려조에 들어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여 8대를 이어와 평장사가 나았는데 공은 그 후손이다. 증조인 국광은 좌의정으로 적개이등공훈에 책록되고 광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조부인 극뉴는 대사간으로 참판에 추증되고 광원군에 봉해졌으며, 아버지 인종은 참의에 추증되고 어머니는 영산 신씨로 군수 우정의 따님으로도 정덕을 추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힘쓰고 장성하여 운수가 기이하여 만

년에야 비로서 벼슬길에 나아가 와서 별채를 제수받고, 삼례찰방으로 옮겼다가 선공감주부로 승진되고, 이어 지례현감으로 나갔다. 가정 신유년 겨울에 관아에서 돌아가니 향년 57세였다. 아들이 계회가 영달하여 공은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부인 전의이씨는 정부인으로 봉해졌다. 부인은 정랑 광원의 따님으로 4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계회로 대사헌이 되고, 차남은 휘는 현령이 되고, 그 다음은 입휘로 별채를 지내고, 그 다음 공휘는 찰방을 지냈다. 큰 딸은 이흠에게 출가하고, 둘째 딸은 채유근에게 출가하였다. 대사헌의 장남은 장생으로 참봉이고 딸은 정기명에게 출가하였다. 현령의 두 딸은 강찬과 송이창에게 출가하였다. 별채는 아들 길생과 선생을 두었다. 채유근의 아들은 흥이고 딸은 윤세정에게 출가하였다. 장생의 아들은, 집, 반이요 나머지 자손들은 모두 어리다.

공은 식견이 특출하고 기상이 중후하며 안으로는 화평하고 밖으로는 엄격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스러움이 완연하였다. 초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음률에 밝았으며 거문고와 바둑 등 잡기에도 조예가 깊었으니, 그 재주 많음과 능력의 폭 넓은이 이와 같았다. 또 추만 정정이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며 역리를 논했는데, 추만이 깊이 탄복하였다. 대사헌은 어려서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여 그 명성이 선비들 사이에서 중하게 여겨졌으며 항상 자기 재주와 학식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는데, 과연 당쟁의 화를 입어 한 때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부인은 자애롭고 온화했으며 가정의 법도가 있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데 부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공보다 9년 뒤, 율경기사년에 돌아가니 환갑되던 해이다. 공은 돌아간지 이듬해, 임술년 2월에 연산 우두리(쇠머리) 선영 곁에 안장되고 부인은 기사년 3월에 부장되었다. 명하여 가로되

贈 曹 曹 參 勒 金 貞 墓 陽 銘

有明朝異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金公神道碑銘并序  
崇政大夫行兵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奎文館大提學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  
李珥 撰

中訓大夫春川都護府使原州鎮管兵馬同舍節制使沈忠諱 壽  
公諱鎬字升京光州人新羅亦有王子避亂于光仍籍焉入麗朝世為大官八代平章公  
其後也曾祖諱國光左議政某故德佐理二勳封光山府院君祖諱克祖大司諫  
判光原君考諱宗胤 贈參議妣靈山辛氏守海郡之女正德乙丑生公秀而公大  
而數奇晚而筮仕拜冠署別提移參禮察訪陞監工監簿出監知禮縣以嘉靖辛酉李  
冬卒于官享年五十七以子繼輝貴故 贈吏曹參判配全義李氏封貞夫人是正即光  
元之女有男四人女二人男長即繼輝大司憲次殷輝縣令次孟輝別提次公輝察訪女  
長適李欽次適蔡有根次憲子長生奉奉女鄭起溟縣令女姜燦宋爾昌別提子吉生善  
生蔡有根次淑女尹世貞長生子稟集禁其餘孫皆幼公識達氣厚內和外嚴墜之輝如  
也善草隸曉音律至於陰陽笑較琴若雜技無不通悟亦多而能博如此與秋聲郭柳而  
同里往還論易理秋密深歎服之大憲少時善善惡惡名重士林問公常戒指梅景被  
禍蹟而復起夫人慈和有閔法成就子女類其教也後公九歲以隆慶己巳強甲子一  
矣公卒之越明年壬戌二月葬于連山牛頭里先塋之側夫人附葬于己巳三月銘曰  
學不從禱 餒在于耕 嗟公抱器 身否心亨 白首青松 猶試半刃 有子克家  
維士之髦 鬱鬱佳城 繫公之藏 穆如有祥 用發幽光  
萬曆十一年八月 月立

贈嘉善大夫吏曹叅判無同知義禁府

事行通訓大夫知禮縣監金公之墓

貞夫人全義李氏

附左



김호 묘갈

### 5. 김호(金鎬) 묘갈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거정터  
연월일 | 서기 1583년(선조 16년, 계미)

찬자 | 이이(李珥)

서자 | 심충겸(沈忠謙)

비신 | 높이 | 126cm

폭 | 71cm

두께 | 21cm

자경 | 전면 | 6cm

음기 | 전액 | 5cm, 비문 | 3cm 해서

석질 | 대리석

김호의 묘갈은 하나의 대리석을 이용하여 이수에 용을 조각하고, 농대석에는 복련이 조각된 좌대를 갖춘 비이다. 전면에는 묘표를 나타내는 큰 글자의 주인공 내용이 있고, 음기는 전액을 갖춘 신도비명으로 되어 있다. 작은 묘갈에 묘표, 묘갈, 신도비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김호는 자가 숙경이고, 광주인이며 김종윤의 아들이다. 벼슬은 별제를 거쳐 삼례찰방에 오르고 선공감 주부를 거쳐 지례현감을 지냈다. 향년 57세로 별세하였는데, 아들인 김계휘가 귀하게 되어 증직으로 이조판서에 올랐다.



子兵曹判書銖居高靈葬七洞娶陝川李氏長子兵馬節虞候俊文次子知事 秀文女金益堅居金海

子判書鉞爲季父參判楊生之後以猶子知事秀文爲嗣參判葬廣明山女縣 監李□無子有四女長引儀柳潤弼居□本道都事

盧景麟卽其壻也居清 州次柳潤祥居京次生員宋沆居礪山次李耿居報恩承旨子省乃楊生之 養翁中武科次沔川郡

守退休三寸姪女承相洪允誠 屢薦屢徵不應終 老墓在判書瑩龍山之陽□□

子府使鉤居高靈葬七洞娶星州呂氏子部將斗文女許雲居昆陽次有子起 文乃文富文

子欽居高靈葬七洞大口全氏女呂良

子生員鑽居高靈葬七洞娶開□曹氏生二女側有子郁文

子兵使鐸居高靈葬七洞娶草溪鄭氏子府使世文女宣 傳官鄭受益居晉州 別有子益文

余去戊午冬十二月以漢城判尹除拜關西節度使庚申六月患痢轉苦秋九月具疏乞退未蒙 允俞臥床九朔日益深重全廢食飲  
轉側隨人今年二月秩滿還京親戚故舊見其骨立驚嘆不已莫敢舉視無意復甦入洛第六日間計奔喪抱病身疲不能遠行就敷于  
良十站閭幕以病不卽歸寧未及永訣號哭之餘思其源而得其緒人之爲後爲其送終則無益殞命不若喫飲而保其喘却其粥而強  
進數匙之食因此氣力稍健發京□日到柩側永窆後碣功垂畢愛其碑陰空棄家世來歷略陳大概

銘曰 金姓相承 後之子孫 先考之先 橫間如何 余官亦何

庶盡一石 賴而記憶 五代爲目 旁視與職 家禮有式

皇明嘉靖辛酉秋 七月 日

孤男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 秀文錄

(後面)

金氏之族譜

朝鮮國忠清道尼山縣地

先不可考

入典吏佐郎其縣南面孝宜薦府使墓在高靈政大夫判開城王之府位之匡人新羅金傅大府院君高麗末高陽府院君 金南得

子

南面靈故莊墓在縣幾辭退居于高遷玉川郡事未初以知司諫左司諫建都漢陽知司諫院事 畝

仕至淮陽府使德恩堂弟士文妻趙氏葬恩津塋公州廣明山山村與參判同因家于尼山陽曹參判趙靖女礪山鴻山取禮正妻司馬  
作宰司僕寺正 士行

子

左承旨居尼山政大夫承政院子省 贈通睿子哲子謀子西七洞山弟子高靈葬于縣之其 贈也居于不求榮達參議樂其村雅刑曹  
參議 子肅

子

判楊生居尼山尼山弟吏曹參直孫其孫也居郎荊生居陝川塋側兄禮曹佐高靈葬七洞先翎享壽稀七居補鎮岑河陽康參判登虎  
科外兵曹參判 莊生

(篆額)  
金公碑篆額

(碑文)

有明朝鮮國資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金公墓碣銘 并序

崇政大夫前議政府左贊成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  
貳傳蘇世讓撰

余休退居閑力田而食矻矻之勞不口以於給家口聞嘗山有逸士曰金鉏其名貲累鉅萬不求仕宦優游頤養賓至則椎牛釃酒閉門  
投轄列筵執絲竹者指以百數燃蠟炬繼日至于卒歲韋布而有公候之樂人稱山林宰相魯山距吾鄉未百舍且於余癸酉門生思欲  
一見其面以道其勞逸而不果常懸懸焉今年二月二十六日忽感疾不起壽八十二又二四月三十日葬于禾谷里陽山村君字平卿鷄  
林人判開城府事高陽府院君南得之玄孫高陽生司諫畝司諫生司僕寺正士行於君曾祖正生刑曹參議子肅參議生 贈兵曹參  
判行司憲府監察莊生卽君之考也娶訓練院參軍魯承周之女六男曰銖中武科官至郡守以子貴 贈兵曹判書曰鈞魁武科官至  
府使曰欽曰鑽生員曰鐸登己卯科以承旨出爲慶尙兵馬節度使君其第二子也器宇坦蕩與物無競睦宗族以思處隣里以仁調窮  
恤之猶恐不及杯觴談笑風流疊疊之樂而忘憂老益不倦眞愷弟君子也先娶訓導成汝輔之女後娶習讀朴思曾之女皆無子以兄  
銖子秀文爲後秀文早擿武科歷敷內外蔚有聲績當今山西之第一流也方被 寵眷擢長京兆追其貴追爵三代 贈君戶曹判書祖  
忠順衛諱楊生 贈吏曹參判曾祖沔川郡守諱子省承政院坐承旨君繼參判之後參判繼承旨之後君席兩世相之繼之資因致不  
貲非世之利而得者也 噫人有五福壽富爲最君既壽且富又得如判尹公爲之嗣所謂五福有其三此人世絕無而僅有者也判尹  
公略叙世系行跡於余不敢辭爲之銘曰

韞玉未售 不霑公祿 客座常滿 適意逍遙 繼業者誰 堅石衰路  
高臥村中 以財爲雄 酒尊不空 竟得壽終 揚揚尤戎 以賁玄宮  
皇明嘉靖四十年辛酉六月 日立石

귀한 구슬을 싸 가지고 팔지 않고 간수하며, 속세를 떠나 은거하면서 편안히 사는구나.

벼슬자리에 물들지 않고, 재물로 영웅이 되었도다.

사랑채엔 빈객으로 가득 차고, 술잔은 항상 가득 차 있구나.

평생을 뜻한대로 한가로이 거닐며 사니. 마침내 장수하고 편안하게 가는구나.

그 사업을 이을 자 누구인가, 양양함이 더욱 큰 군사로다.

묘도에 비를 세우니, 무덤이 더욱 빛나는구나.

황명 가정 40년 신유(서기 1621년) 유월 일에 비를 세우다.

(역주)

① 일사(逸士) 一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면서 사는 훌륭한 선비.

② 위포(韋布) 一 평민복. 韋袴布皮 一 가죽바지와 배옷, 가난한 사람의 복장. 韋帶布衣 謂寒素之服也.

夫布衣韋帶之士 孤居特立 王公大人所以禮下之者 爲道存也

(司馬相如 報文君書) 五色有燦而不掩韋布

③ 산림재상(山林宰相) 一 덕과 학식은 높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서 독서만 하는 선비.

④ 습독(習讀) 一 조선시대 훈련원의 습독관으로 중9품의 무관직.

\* 김임 묘갈

(전 액)

김공비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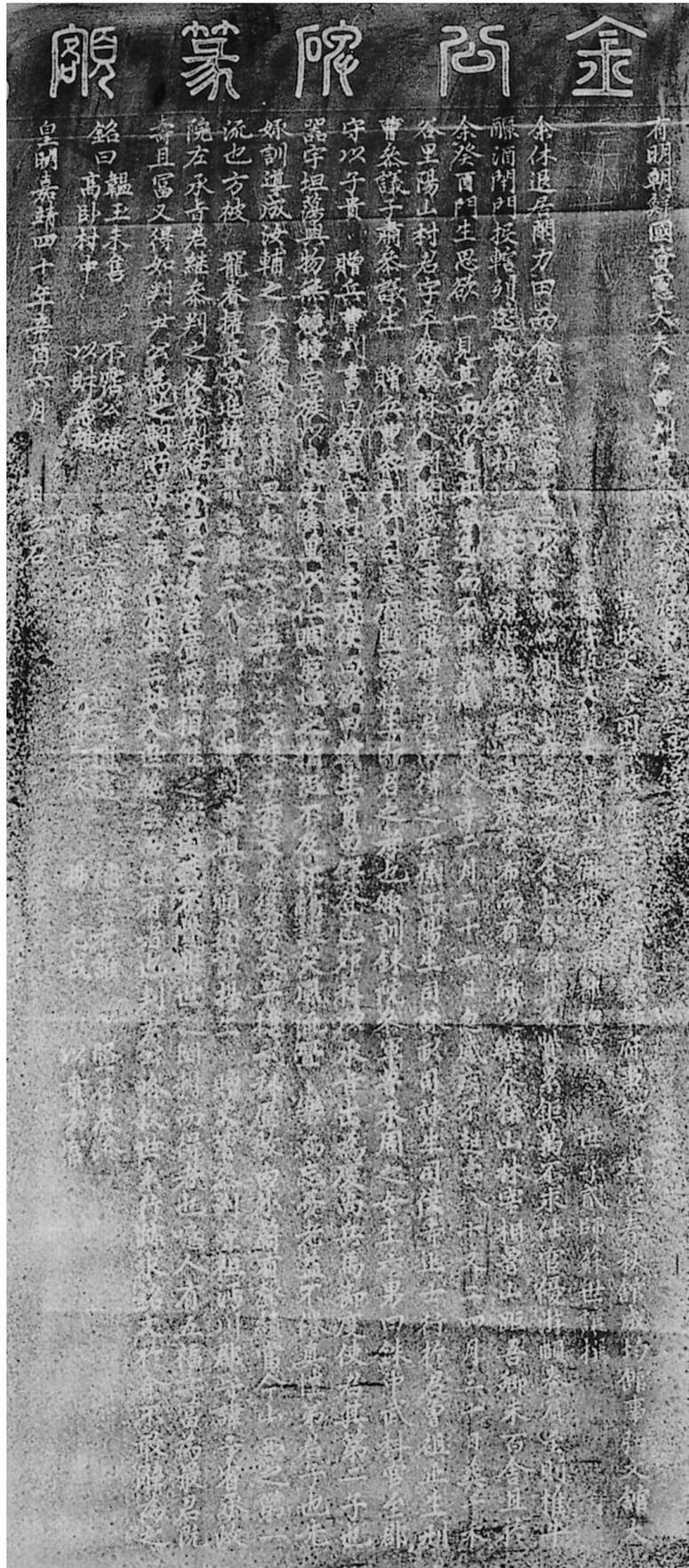
(비 문)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호조판서 겸지 의금부사 김공묘갈명 병서  
 승정대부전의정부좌참성판의금부사지 경연출추관성판관사홍문  
 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 세자이부 소세양찬

내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받을 갈며 부지런히 일하여  
 가족들과 먹고살면서 들으니 상산에 한 일사①가 있는데 그가 바로  
 김임이다. 그는 재산을 많이 모아 거부하면서 벼슬을 구하지 않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며 손님을 지극히 잘 접대함이 이와 같았  
 다. 소를 잡고 술을 빚으며 문을 닫아걸고 잔치를 베풀 때 손님과  
 풍악을 울리는 이가 매우 많았다. 연일 햇빛을 밝히며 한 해가  
 말도록 계속하였다. 평민복②을 입었지만 제후의 연락이 있어 사  
 람들은 그를 산림재상③이라고 불렀다. 노성에서 나의 고향(금  
 마)까지의 거리는 이백리가 못되고 또 나에게 계유 문생으로서 한  
 번 만나 보고자 하나 힘쓰고 간절함이 과감치 못하여 항상 초조하  
 더니 금년 2월 26일에 홀연히 감기로 돌아가시니, 향수는 82  
 세였다. 4월 30일 화곡리 양산촌에 장사하였다. 공의 자는  
 평경이요 계림인이며 개성부사 고양부원군 남득(南得)의 현손이  
 다. 고양부원군이 사간인 무(畝)를 낳고 사간공은 사복사정사행  
 (土行)을 낳았는데 그가 공의 증조이며 사복사정공이 형조 참의인  
 자숙(子肅)을 낳고 참의공이 증직이 병조참판이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장생(莊生)을 낳았는데 그가 공의 아버지이다. 훈련원 참판  
 노승주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여섯 아들을 두니 큰아들 수(銖)는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내고 아들이 귀하게 되어 병조판서에  
 증직 되었다. 세째 아들 구(鉤)는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를 지내  
 고, 네째 아들은 흙(欽)이요, 다섯째 아들 빈(鑣)은 생원을 지내  
 고, 여섯째 아들 탁(鐸)은 기묘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내고  
 경상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공(鉉)은 둘째 아들로 덕량은 평활하  
 고 너그러웠으며 재물은 건출이 없이 많았고, 친척들과 화목하  
 고 이웃 생각하기를 인자함으로 하여 빈민 구제함에 미치지 못할가  
 두려워하였다. 술잔을 기울여 담소하며 풍류를 유희자적으로 즐  
 기며 근심을 잊어버리고, 늙을수록 진실로 나태하지 않고 군자됨  
 을 즐겨하였다. 첫째 부인은 훈도인 성여보의 따님이고 두 번째  
 부인은 습득④ 박사중의 따님인데 모두 아들을 두지 못했다. 그대  
 서 공의 형수(銖)의 아들 수문(秀文)으로 후사를 삼았다. 수문은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내외 직을 역임하고 번창하여 명성과 공적  
 이 당시 계룡산 서쪽에서는 제일이었다. 바야흐로 임금의 총애를  
 입어 한양의 관운으로 발탁되고 귀하게 되어 삼대의 관직이 추증되  
 었다. 공은 호조판서로 증직되고 할아버지 증순위 양생은 이조  
 참판으로 증직되고 증조 면천군수 자성은 승정원 좌승지로 증직되  
 었다. 공은 참판공의 양자가 되어 승지공의 뒤를 이었다. 공은  
 양세의 자산을 이어 받아 세상의 재리로 치부하지 않아도 그것을  
 얻은 분이다. 슬프도다 사람들의 5복중 수와 부가 최고인데,  
 공은 이미 수와 부는 얻었고 또 관운공과 같은 분이 공의 후사가  
 되니, 5복중에 세 가지가 가진 것은 인간 세상에서 끊어져 없어  
 졌던 것이 겨우 나타난 것이다. 관운공이 공의 약속한 세계와 행  
 적을 가자고와 묘비명을 나에게 구하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이를 지어 명하기를





김임 묘갈



김임 묘갈

#### 4. 김임(金 鉉) 묘갈

소재지 |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연월일 | 서기 1561년(명종 16년, 신유)

찬자 | 소세양(蘇世讓)

서자 | 미상

비신 | 높이 | 152cm

폭 | 67cm

두께 | 21cm

자경 | 전액 | 6cm

비문 | 2·5cm

석질 | 대리석

김임의 묘갈은 이수와 귀부를 갖춘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묘갈 형식이다. 전면에는 묘비문을 새기고 후면에는 선대의 족보를 새겼다. 간혹 족보를 새긴 비갈은 있으나 도식화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예는 별로 없어 사료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비문은 양곡 소세양이 지었는데 그는 문장가로 시문에 능하였다.

김임은 자가 평경이고 고령인이다. 서기 1513년 진사로서 호조판서를 증직 받았다. 당시 만석의 거부로 구제활동을 많이 하여 산림재상이라고 불리웠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풍류와 시문을 즐기는 선비로 살았다.



\* 李長卿 墓碣

(篆 額)

縣監李公墓碣

(碑 文)

君姓李氏諱長卿字元老加平人也曾祖諱多林同知中樞院事祖諱亨孫嘉平君考諱鐵根珍山郡守成化壬辰五月二十五日生少志學有名舉乙卯進士竟落托不得志以門蔭補別坐歷敷中外其在京曰義禁府經歷長興庫內資寺主簿司憲府監察翊衛司翊贊其補外曰京畿道水運判官宜寧禮山安陰凡三縣宰雅性醇儉不事產業居官尚清簡嘉靖辛卯在安陰考滿遞爲中部主簿未遠而卒于官配漢陽趙氏賢而克相忠義衛壽延之女開國功臣溫之後生于成化丁酉沒于嘉靖丙申生沒皆後君五年壽皆六十俱葬于連山縣南天護山辰坐戌向之原從先兆也有二男長曰顥忠義衛定略將軍娶僉正辛世瑚女生二男三女男汝礪汝舟女皆幼次曰顥登乙酉文科今爲司憲府掌令將必大顯厥親以賁于泉娶執義申儼女生一男一女男汝欽女幼掌令余按察關東時幕僚也請余銘義不可辭銘曰

到耳順尙 永年旣鍾 德宜獲賢 食其報施 志厚門斯 昌克裕後。

及第金魯書。

嘉靖 十六年 五月 日立。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禮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沈彥光 撰

\* 이장경 묘갈

(역 문)

(전 액)

현감이공묘갈

(비 문)

유명조선국 통훈대부행 안음현감 이군묘갈명 병서

군의 성은 이씨이요, 이름은 장경이요, 자는 원로이니 가평인이다. 증조는 다람이니 동지중추원사요, 할아버지는 형손이니 가평군이요, 아버지는 철근이니 진산 군수이다. 성화 임진년 5월 25일에 태어나, 소년시절 학업에 뜻을 두어 이름이 있었다. 을묘년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불운하여 뜻을 얻지 못하고, 조부의 음덕으로 별좌에 보임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사관을 역임하였고, 서울에 있을 때에는 의금부 경력과 장흥고내시주부와 사헌부 감찰과 의위사 익찬을 지냈으며, 외직에 보임 되었을 때에는 경기도 수군관관과 의령, 예산, 안음의 세 지방 현감을 지냈다. 본래 성품이 순후하고 검소하여, 벼슬에 있을 때 청렴 결백하여 봉록을 축내지 않았다. 가정 신묘년에 안음에 있을 때, 임기가 다 하여 경질되면서 중부주부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재직 중에 돌아갔다. 아내 한양 조씨는 어질고 남편을 잘 섬겼고, 충의위 수정의 따님이며, 개국공신 온의 후손으로, 정유년에 낳아 병신년에 돌아갔는데, 공보다 5년 뒤에 돌아가니, 향수가 60세이며, 연산현 남쪽 천호산 진좌 술향 언덕에 선영에 따라 장사

하였다. 2남을 두니, 장남 호는 충의위 정략장군이요, 첩정신세호의 따님을 취하여 2남 3녀를 두니, 아들들은 여려와 여주이요 딸은 다 어리다. 차남 이는 을유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 사헌부장령이 되었는데, 장차 반드시 그 부모를 이름나게 하여서, 황천에서도 훌륭하게 할 것이다. 집의 신임의 따님을 취하여 1남 1녀를 두니, 아들은 여흠이요, 딸은 어리다. 장령은 내가 관동 안찰사일 때, 마료이다. 나에게 명을 청하니, 정의를 봐서 가히 사양치 못하고, 명하여 가로되,

나이 60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수를 누렸구나.  
이미 덕업을 쌓았으니 어진 자손을 얻으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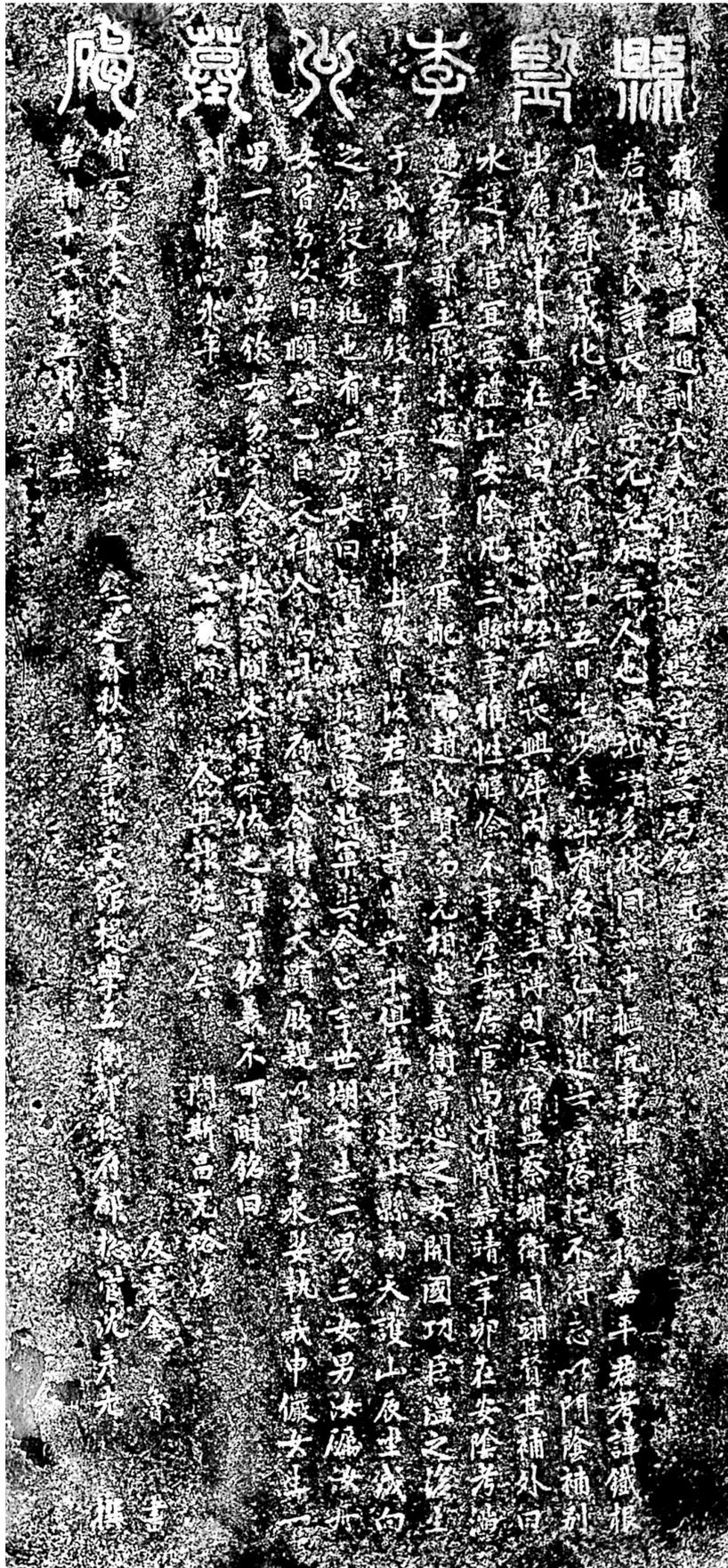
복록으로 그 은혜를 갚아서 후하게 베풀어,

가문이 이에 창성하고, 능히 자손이 잘 되게 하리로다.

급제 김로 씀

자현대부가 조판서겸지경연춘추관사예문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  
심언광 지음.

가정 16년 5월 일 세음.



이장경 묘갈



이장경 묘갈

### 3. 이장경(李長卿) 묘갈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청동골  
연월일 | 서기 1537년(중종 32년, 정묘)

찬자 | 심언광(沈彦光)

서자 | 김로(金魯)

비신 | 높이 | 145cm

폭 | 55cm

두께 | 18cm

자경 | 전액 | 6cm

비문 | 2·4cm

석질 | 대리석

이장경의 묘갈은 대리석 비신에 이수를 하고 사각 좌대에 연화문을 새긴 농대석을 갖춘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비갈 양식을 하고 있다. 전면에 전액과 묘갈명을 새겨 놓았다. 이수의 반룡 조각이 우수하다.

이장경은 철근의 아들로 1472년(성종 3)에 태어났다. 안음현감을 지내다 1536년(중종 31)에 돌아왔다. 묘는 연산면 청동골에 있는데 봉분은 방형으로 하고 봉분 주위를 돌래석을 세워, 조선 초기의 묘제를 보이고 있다. 부인 전의 이씨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加平之李 世聯簪纓 祖以勳顯 孫以能鳴 公之初度 學以求進 投筆從戎 乃發其軻 畀之涇郡 豈曰不屑 貢譽于朝 遂握闥節 肅肅起令 恂恂起風 夷懷卒慕 王曰乃功 擢之禁密 試之繁委 機制恢恢 寮吏改視 西關鍵鑰 末路是膺 期末及瓜 二豎斯凌 何言將算 遽稅半途 餘慶必鍾 責報如符 天麓儲休 青烏宿卜 祖考在是 百歲來復 盈尺之石 記德無隳 銘詞不諛 子孫之貽。

皇明嘉靖四年乙酉 八月十五日。

通政大夫前弘文館副提學 鄭士龍 撰。

\* 李長生 墓碣

(前 面)

嘉善大夫兵曹參判 嘉原君 李公之墓

貞夫人全義李氏之墓

(陰 記)

(篆 額)

嘉原君李公墓碣

(碑文)

嘉靖紀元壬午孟冬嘉原君李公長生捐館享年五十六越四年乙酉春其季禮山縣監長卿袖公誌本諗余曰子於吾門屬邇又嘗蒙行於我兄墓表之事子其張之余辭以御恤禮山踟門者屢而請益懇乃勉諾而敘之謹案公系曾祖諱多林同知中樞院事祖諱亨孫策勳敵愾封嘉平君考諱鐵根官終鳳山郡守寔娶全州望氏崔喜補之女成化丁亥生公公少志學又並射嘉平君俾取長而習武弘治庚戌中甲科授龍驤衛後部將擢宣傳官由訓練判官出補渭原郡守任滿內遷廣興倉守移典設尋陞堂上虞侯咸鏡北道年僅三十有四癸亥丁內艱丙寅起授訓練都正俄節度咸鏡南道丁卯遭外憂己巳節度忠清水軍辛未入兵曹爲參議壬申轉承政院右副承旨累陞爲左冬進階嘉善兵曹參判襲封嘉原君癸酉以刑曹參判充謝恩使朝京還兼副摠管甲戌授漢城右尹復爲兵曹參判丁丑節度平安己卯以病釋任自是就第養閒者凡四年公性方毅綜密當官處事微傷設惰容練達戎務又善書札儒者難及故所至皆有聲績朝廷甚加簡器而竟屈遠圖茲豈非命公配李氏僉使起敬之女賢而能家爲宗姻式先公沒所出一男一女男曰震秉節校尉女適士人金龜孫震娶忠義衛柳堦女生二子曰思建思立俱穎秀公從先兆葬于連山縣天護山之原與夫人同域異塋銘曰

썼다. 명하여 가로되,

가평 이씨가 대대로 벼슬이 이어지니, 조상은 공훈으로 드러나고, 자손은 재능으로 이름났네.

공은 초년에 학문으로 출세를 구했으나, 붓을 던져고 병기를 잡아 벼슬길에 오르도다.

작은 고을 맡았지만, 어찌 부족하다 하겠는가. 조정애 공훈이 알려져 드디어 병권을 잡았도다.

내린 영이 엄숙하고, 그 풍채가 믿음직하여, 오랑캐도 회심하고 병졸들도 사모하니, 왕이 말하기를 『네의 공이라.』 하였다.

금위 밀직으로 발탁되어 번잡한 임무를 맡았어도, 기능과 법도가 크고 넉넉하여, 동료들도 다시 보게 되었다.

평안도 절도사를 말년에 하였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두 번 속고 업신여김을 당하니 어찌 장구함을 피하겠는가.

빨리 증도에서 그만 두었으니, 남은 경사가 반드시 모여서 하늘의 보응이 있으리라.

천호산 기슭 설만한 곳에, 명사가 복지를 잡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기에 계신데, 백세만에 돌아 왔도다.

몇 척되는 비석에 공덕을 새기니, 어그러짐이 없고, 명의 글이 아첨의 말이 아님을 자손들에게 끼쳐 남겨 주노라.

통정대부 전홍문관부제학 정사룡 삼가 지음.  
 황명 4년 을유 8월 15일.

(역 주)

- ① 우후(虞候) 一 종삼품 무관직.
- ② 습봉(襲封) 一 제후가 영지를 이어 받음.
- ③ 양생(養生) 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

\* 이장생 묘갈

(전 면)

가선대부병조참판 가원군 이공지도  
정부인진의이씨지묘

(음 기)

(전 액)

가원군이공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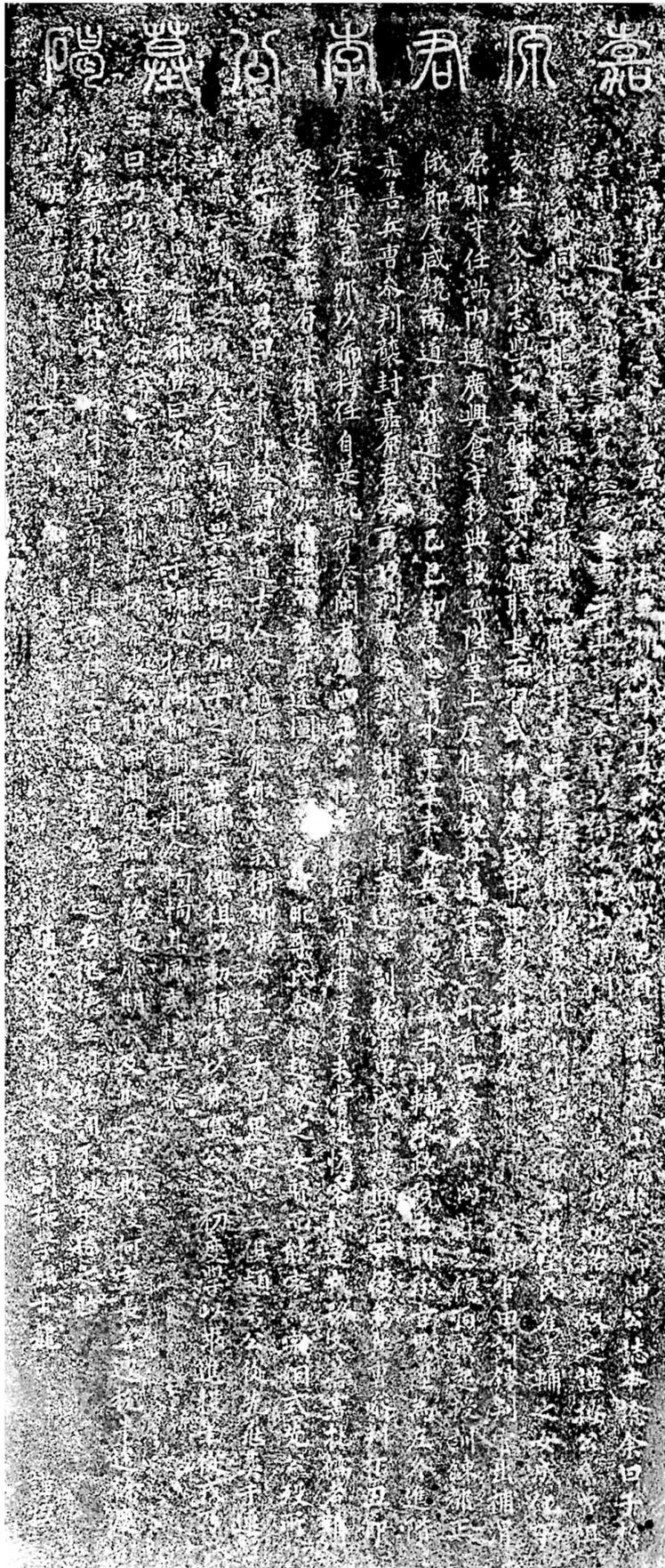
(비 문)

가정연간 임오년 초겨울에 가원군 이공 장생이 돌아가니, 향년 56세이었다. 4년 후 을유년 봄에 그 동생 예산 현감 장경이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우리 집과 가깝게 지내고 또 일찍이 내 형의 묘표 일로 은혜를 입었으니, 명을 지어주시게.』 하였으나, 내가 근심되는 일이 있어 사양하였으나, 예산 현감이 나를 찾아오기를 여러 번 하고, 청하기를 간절히 함으로, 이에 허락하고 글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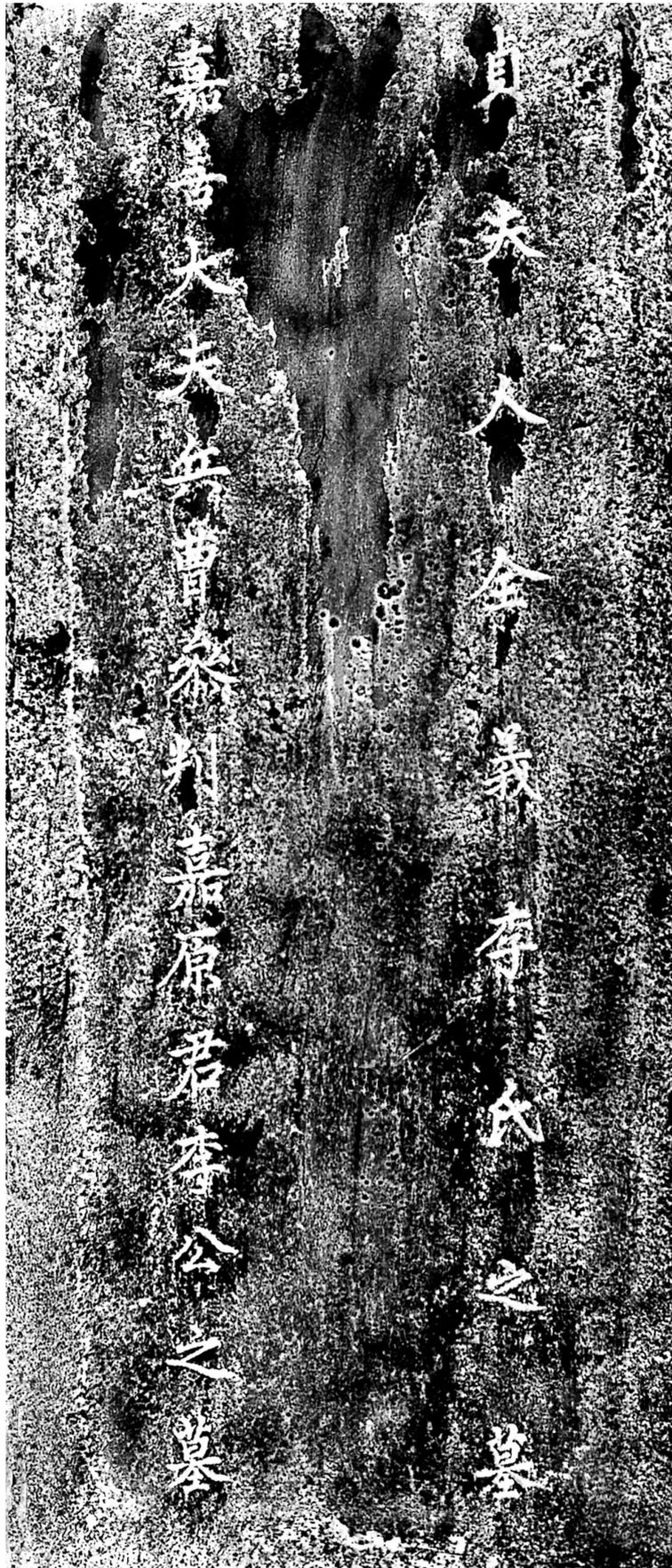
삼가 공의 선계를 상고하니, 증조 다림은 동지중추원사이요, 할아버지는 형손이니, 적개의 공훈으로 책록되어 가평군을 봉하고, 아버지는 철근이니 벼슬이 봉산 군수로 마쳤는데, 이분이 전주 최씨를 취하니, 희보의 따님이다. 정해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렸을 때 학문에 뜻을 두고, 아올러 활을 잘 쏘니, 가평군이 그의 장점을 취하여 무예를 인히게 하였다. 홍치 경술년에 갑

과에 급제하여 용양위 후부장을 제수하였다가, 선전관으로 발탁되고, 훈련관관으로 나갔다가, 위원 군수에 보임되고, 임기가 만료되어 내직인 광흥창수로 옮기고, 다시 전설로 전직하고, 바로 당상에 올라 함경북도 우후<sup>①</sup>로 나가니 나이 겨우 34세였다. 계해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병인년에 훈련도정에 제수되었으며, 갑자기 함경남도 절도사가 되었다. 정묘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기사년에 충청수군절도사가 되고, 신미년에 병조에 들어가 참의가 되었으며, 임진년에 승정원 우부승지로 전보되고, 계속 승진하여 좌승지가 되고, 겨울에 가선대부 병조참판이 되고, 품계가 올라 가원군을 습봉<sup>②</sup>하였다. 계유년에 형조참판으로 사은사가 되어 남경에 갔다가 돌아와, 부총관을 겸임하고, 갑술년에 한성우윤을 제수하였다가 다시 병조참판이 되고, 정축년에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다가, 기묘년에 병을 얻어 관직을 그만두고, 이로부터 자택에서 편안히 양생<sup>③</sup>하기를 무릇 4년 간을 하였다. 공의 성품은 언행이 바르고 점잖았으며, 의지가 강하고 씩씩했으며, 자상하고 세밀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함에 태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군무에 익숙하게 단련하여 통달하고, 또 서찰을 잘 쓰니, 선비들도 따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매우 가법게 여겨 크게 쓰이지는 못하여 원대한 꿈을 펴지 못했으니, 이는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공의 부인 이씨는 첨사 기경의 따님으로, 어질고 집안을 잘 다스려 일가간에 부도의 모범을 되었으나, 공보다 먼저 돌아갔다. 1남 1녀를 두니, 아들 진은 병절교위요, 딸은 사인 김귀손에게 출가하였다. 진이 충의위 류우의 따님을 취하여 2남을 두니, 사견과 사립으로 모두 사람됨이 준수하다. 공을 선영을 따라 연산 현 천호산 언덕에 장례하니, 부인과는 같은 자리이나, 묘는 따로



이장생 묘갈. 음기



이장생 묘갈



이장생 묘갈

## 2. 이장생(李長生) 묘갈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청동골

연월일 | 서기 1525년 (중종 20년 을유)

찬 자 | 정사룡

서 자 | 미상

비신 높이 | 140 cm

폭 | 54 cm

두께 | 18 cm

자 경 | 전면 | 5·5 cm, 음기 전액 | 4 cm, 비문 | 2 cm

석 질 | 대리석

이장생 묘갈은 대리석 비신에 복연엽 비두를 갖추고 있으며, 전면에는 묘표를 새기고 음기에는 묘갈문이 새겨있다. 오랜 세월의 풍우로 마모가 심하다.

이장생은 가평인으로 봉산 군수를 지낸 철근의 아들로 1467년에 태어나 1522년에 타계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활쏘기를 좋아하여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1490년 갑과에 급제하여 용양을 제수 받았다. 부장을 거쳐 선전관을 지내고 함경도 절도사와 충청수군 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형조 참판이 되어 사은사로 중국 연경에 다녀오고, 병조 판서를 거쳐 평안도 절도사를 지냈다.



而家無間言娶順安縣令禹元球女生二男一女長曰珍山郡守鐵根次曰成歡道察訪鐵榮女適社稷署令鄭叔墩郡守生二男曰長生登庚戌武科今爲宣傳官後爲參判曰長卿乙酉進士察訪生四男長彥長弘長俊長輔署令生一男曰鎰乙卯進士既識其畧銘石之端曰

兜鍪收績太常紀勳既富既壽有子有孫連山之原松檟蔚然四尺已封石以表阡。

奉訓郎守戶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 金駟孫 撰

皇明弘治 九年 閏三月 日

(新 碑)

(側 面)

光山後人 金相庚 書。

崇禎後三癸丑 閏五月 日。

## \* 李亨孫 墓碣

(前 面)

精忠出氣敵愾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 五衛都摠府副摠管咸吉道都鎮撫使嘉平君平湖公李公之墓  
貞夫人丹陽禹氏之墓

(陰 記)

有明朝鮮國敵愾功臣嘉平君李公墓碣銘 并序

弘治丙辰春嘉平君李公寢疾不興計及于清道噫公吾母倫也宜哭於寢而方在告侍母疾恐驚母心忍痛而未也尋其兩孤郡守察訪伴來號訴索撰阡表曰先君常謂死無德業不宜建碑粗表墓道使子孫展其處足矣今不敢違謹具短碣請識其畧噫公勳封宰相也自貶而不碑誠儉矣嗣子能遵遺命猶欲略撰實歷不求諸京師文苑之近而遠求於駟孫亦勤矣噫公眞今世之篤於睦姻者也昔先君老於外吾伯仲氏舉於京師布衣同登壬寅甲科無親表左右者公與夫人禹氏自聞喜及遊街所費悉令家人措辦繼予登丙午科亦然通家往來常視猶子吾在京師公已病往問疾於臥內公曰老夫病殆不痊無報君勤厚惟戒子孫無忘世好云噫言猶在耳公已亡矣藥鑪噓煙道路脩阻未能棄而奔哭且慰其孤幽明兩負奈如何姑排聞把筆以答其孤之望公諱亨孫字昌伯加平人也考諱多林 贈純忠積德補祚功臣正憲大夫兵曹判書王考諱忱嘉靖都評議事曾王考諱椿桂奉翊版曷判書妣宋氏知錦州理之女以永樂戊戌生公於連山庄幼學射旣冠屬內禁衛三以都試一等又登丁卯科守吉州判官政最加奉正大夫超遷軍器副正丁丑秋採訪咸吉道句當回啓蒙 世廟嘉賞尋科折衝將軍歷藍浦沃溝兩鎮兵馬使咸吉道都鎮撫義州牧使豈有聲績丁亥夏同朴公仲善領平安甲卒破逆賊李施愛奏凱爲第二等敵愾功臣是秋陞嘉善大夫嘉平君行全羅道節度副使兼尹全州明季丁父憂還朝以母老謝事 成廟特補公州牧使以便養後又牧清州壬子冬 成廟欲收庶孽之寸肇設羽林衛以公爲將尋兼副摠管以終葬于連山縣西天王洞辰坐戌向之山享壽七十九歷事六朝小心謹慎所莅著稱言溫而氣森才鍊而政敏人不覺其爲武人內治甚雍多畜侍妾

번이나 도시④에 일흔을 하였다. 또 정묘년 과거에 합격하여 길주 관관을 지내면서 마을을 잘 다스려 통정대부에 오르고, 군기부정에 초천⑤하였다. 정묘년 가을에 함길도 채방사로 가서 매사를 부지런하게 힘써 정당하게 처리하고,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니, 세조가 상을 내리고, 이어 절충장군을 배수하였다. 남포와 옥구 양진의 병마사와 함길도 도진무사와 의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그때마다 모두 훌륭한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정해년 여름에 박공 중선과 함께 평안도 군사를 거느리고, 역적이 시애를 격파한 뒤에 개신하여, 제이등적기공신이 되었다. 이해 가을에 가선대부가 평군에 승진하고, 전라도 절도부사 겸 전주부윤을 지냈다.

이듬해 부친상을 당하여 조정에서 돌아왔으며, 어머니가 늙어 벼슬을 사임하니, 성종이 특히 공주 목사에 임명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편하게 하였다. 후에 청주 목사가 되고, 임자년 겨울에 성종이 서얼의 인재를 들어 쓰려고, 처음으로 우림위⑥를 설치하고, 공으로 장군을 삼고 부총관을 겸임시켰다.

돌아가신 후에, 연산현 서쪽 천왕동의 서북쪽 산에 장사지내니, 향년 79세이었다. 여섯 조정에서 관직을 역임하며, 조심하고 삼가하여, 다스리는 곳마다 칭송이 일어나고, 말씀은 온화하되 기상은 삼엄하며, 재능은 단련되고 통달하며, 정사는 민첩하여서 사람들이 그가 무인임을 깨닫지 못했다. 집안을 다스림에 심히 어슬럼이 화목하여서, 시첩을 많이 두었으나, 집안은 불화스런 말이 없었다. 순안 현령, 우원구의 따님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진산 군수 철근이요, 차남은 성환도찰방 철영이요, 딸은 사직서령 정숙에게 출가하였다. 군수가 2남을 두니, 장생은 경술년 무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선전관이 되었고 뒤에 참판이 되었다. 장영은 을묘년에 진사가 되었고, 찰방이 4남을 두니, 장연, 장홍, 장준, 장보이다. 서령이 1남을

두니, 평이요 을묘년에 진사가 되었다.

이미 그 대략을 기록하여 비문을 짓고, 비석 끝에 적어 말하기를, 무공으로 공적을 거두니, 태상⑦이 공훈을 기록하였다. 이미 부와 수를 누리었으며, 훌륭한 아들과 손자를 두었다. 연산 언덕에 소나무 가래나무가 무성하고⑧, 녀자 높이로 이미 무덤을 만들고 돌로 묘의 자리를 표하노라.

봉훈랑수호조정랑겸 춘추관기주관 김일손 지음.  
 황명 홍치 9년 윤 3월 일 세움.  
 승정후 3년 계사 윤 5월 일.

광산 후인 김상경 씀.

(역주)

- ① 근간(勤懇) - 정성을 다함.
- ② 유가(遊街) - 과거의 급제자가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으면서 거리를 돌고, 座主, 先進者, 친척 등을 찾아보는 일로 보통 사흘을 행함.
- ③ 세의(世誼) - 대대로 사귀어 온 정의.
- ④ 도시(都試) - 지방 兵使가 해마다 봄, 가을에 武才를 시험하여 뽑는 과시. 세 번 등과(1). 세종 18년 병진 무과과에 급제.
- ⑤ 초천(超遷) - 등급을 뛰어 넘어 진급함.
- ⑥ 우림위(羽林衛) - 조선 내삼위의 하나로, 성종 때 처음 설치하여 종2품 세사람을 두다가 정3품 두사람을 두고 금군 200명을 둠.
- ⑦ 태상(太常) - 奉常寺(용상시)를 이름. 제향과 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 ⑧ 송가(松檜) - 소나무와 가래나무. 묘소 주위에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었음. 그래서, 송가는 묘소를 대칭하는 말이다. (松及檜植於墓旁 故又爲墓地之代稱)

## \* 이형손 묘갈

(전 면)

정중출기적기공신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겸 오위도총부부총관함길  
도진무사가평군평호공이공지묘

정부인단양우씨지묘

(음 기)

유명 조선국 적기공신 가평군 이공 묘갈명 병서。

홍치 병진년(1496) 봄에 가평군 이공이 숙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 이 소식이 내가 사는 청도에 이르렀다. 슬프도다! 공은 나의 외가 친척이라서 마땅히 영전에 곡하여 조문함이 도리이지만, 마침 휴가를 얻어, 집에서 병환중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소식으로 놀라실까 봐, 두려워서 애통함을 참고, 가보지 못하였다. 이어 그의 두 자제인 군수와 찰방이 사람을 보내어 묘표의 글을 지어줄 것을 호소하며 말하기를,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평소애 덕을 행하지 못하고 죽으면, 커다란 비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고, 간단하게 묘의 자리나 표해서, 자손에게 무덤이나 살피게 하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고 삼가 작은 비석을 세우고, 아버님의 일생을 간략히 기록하고자 그 개략을 지어 줄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아! 공은 공훈으로 봉한 재상이나, 스스로 낮추고 비를 세우려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검소한 분이다. 만아들이 능히 아버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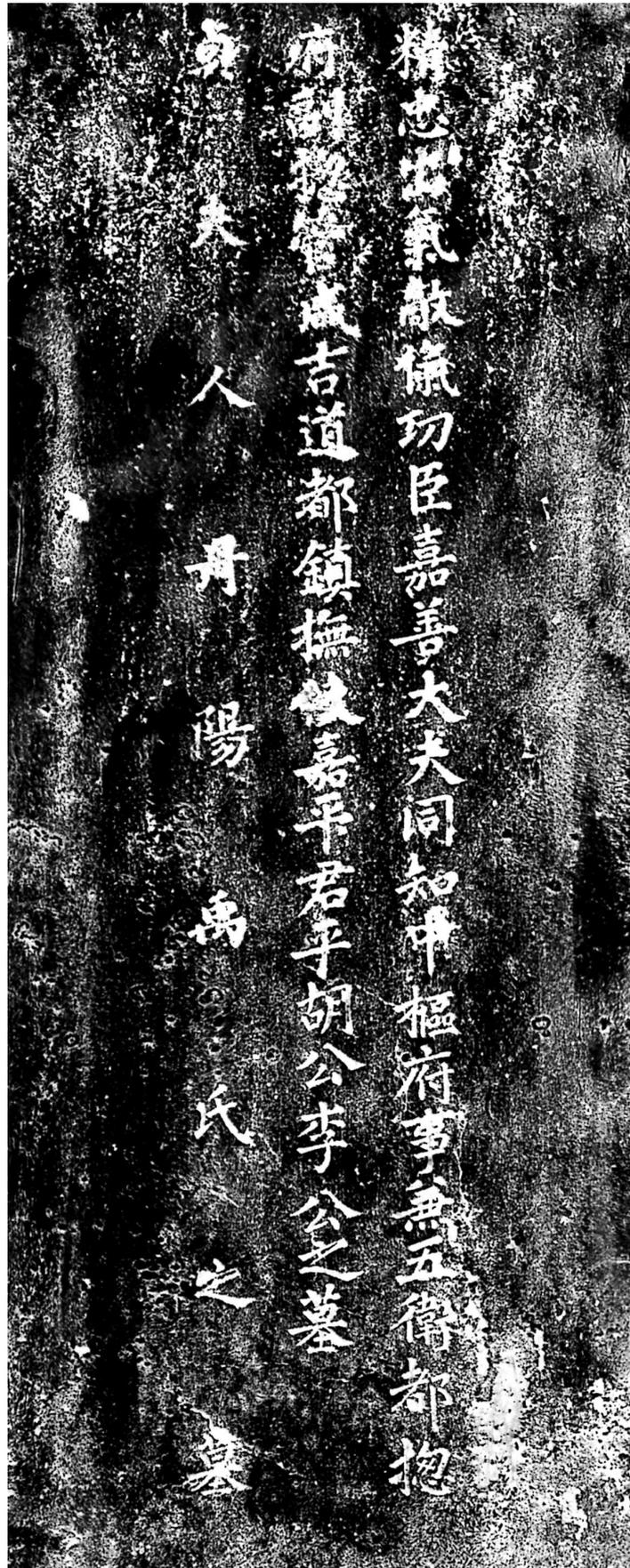
남기신 말씀에 따라 오히려 실제 경력을 간단하게 쓰려고, 서울의 글 잘하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서 구하지 않고, 멀리 있는 나에게 청하니, 또한 정성을 다함이라 하겠다.

아! 공은 진실로 오늘날 보기 드문 분으로, 화목하고 남을 아끼는데 돈독한 분이다. 전에 나의 아버님이 나이를 외지에 계실 때, 내 큰형과 중형이 서울에서 벼슬 없이 곤궁한 중에, 임인년 과거에 같이 급제하였으나, 주위에서 도와 줄 친족이나 외척이 없었다. 이때 공과 오씨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기뻐하며, 유가②에 쓰이는 비용까지 사람을 시켜, 마련해 주고, 또 이 어 내가 병오과에 급제했을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하였으며, 온 집안이 내외 없이 왕래하며, 늘 아들이 대해 주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공이 이미 병중이어서, 찾아가 누워 계신 안방에서 문병하였더니, 공이 말하기를, 『남은이의 병은 이제 낫지 못할 것이다. 자네의 부지런하고, 온후한 뜻을 값은 길이 없고 다만 자손에게 일러, 세의③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다. 슬프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공은 이미 가셨다. 어머니 약을 다리는 화로에 연기 불기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슬프게 울고 또 자제들을 위문해야 옳은데도 길이 멀고 막혀서 그렇게 못하니, 죽은 이와 산자를 둘 다 저버리는 격이라. 이를 어찌 해야 하는가. 우선 들은 바를 밀어 놓고, 붓을 잡고, 그 자체의 요구한 바를 보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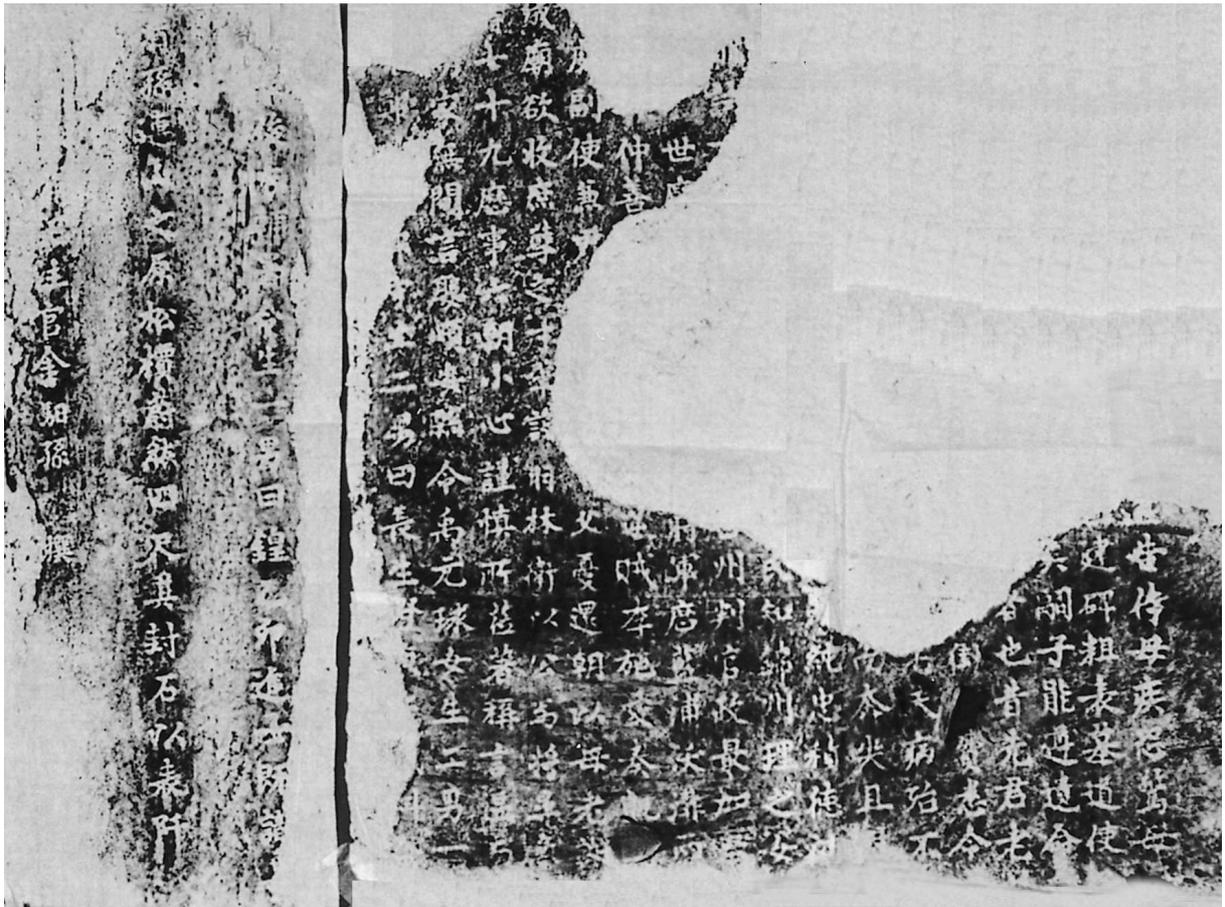
공의 이름은 형손이요, 자는 창백이며 가평인이다. 아버지는 다림(多林)이니 손중적덕보조공신 정헌대부 병조판서를 지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침이니, 가정도평의사요, 증조부의 이름은 춘계인데 봉의관위판서이다. 어머니는 송씨이니, 금주 군수리의 따님으로, 영락 무술년에 연산에서 공을 낳았다.

어려서는 활쏘기를 익히고, 20세에 내금위에 들어가고, 세





이형손 묘비



이형손 구 묘표



이형손 묘표



이형손 신 묘비

1. 이형손(李亨孫) 묘갈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청동골

연월일 - 서기 1496년(연산 2년, 병진)

찬자 - 김일손(金駟孫)

서자 - 구비 - 미상, 신비 - 김상경

비신 - 구비 - 높이 - 142cm, 폭 - 57cm, 두께 - 25cm

신비 - 높이 - 156cm, 폭 - 64cm, 두께 - 23cm

자경 - 구비 - 2·1cm

신비 - 전면 - 4·5cm, 음기 - 1·8cm

석질 - 구비 - 대리석

신비 - 화강암

이형손은 세종 때 무인으로 그의 묘갈은 김일손이 비문을 지어 세운 것인데, 오랜 세월로 풍화되고 일부가 파손되고 마모되어 후에 묘 옆에 팔작 지붕 모양의 가침석과 농대석을 갖춘 비를 구비의 비문을 그대로 새겨 세워 놓았다.

이형손은 가평인으로 1418년(태종 18)에 다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창백이다. 1447년(세종 29)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였고, 그 공으로 적개공신 2등이 되고, 가평군으로 봉해졌다. 공주·청주 목사를 거쳐 벼슬이 부총관에 이르러 1492년(연산군 2)에 타계하여 시호를 평호로 받고, 연산면 청동리에 장사지냈다.

묘갈은 묘소 앞에 세워져 있고 묘 옆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있다. 묘갈의 찬자는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어 사화를 입은 탁영 김일손이다. 탁영이 사관이 되었다가 34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이형손의 묘갈은 김일손이 남긴 유일한 비문이 될 것

같다.

원래의 묘갈이 거의 마멸되어 1793년경에 원문을 새로 새겨 현재의 묘갈을 세웠으나 이것 또한 마멸되어가고 있다.



# 묘갈

